<녹 취 문>

과제명	2025년 미추홀학산문화원 <'옛)동양제철화학과 학익동, 용현동 일대의 변화'>		
구술자	이 병 용		
면담자	조연희	면담지원자	송미정
면담일시	2026. 6. 15.	면담장소	미추홀학산문화원 동아리실 2
녹취문 작성자	조연희	회차	1차

1. 시작멘트 : 일시 및 연구진 소개 (00:00:14~00:04:24)

본 면담은 2025년 인천광역시 미추홀 확산문화원의 구술채록을 위한 인터뷰입니다. 옛) 동양제철 화학과 학익동, 용현동 일대 도시의 변화에 대한 기록을 위해 관련된 분들의 이야기를 구술해 주실 분은 이병용 선생님입니다. 일시는 2026년 6월 15일 월요일이고, 장소는 미추홀학산문화원 동아리실2입니다. 면담 진행은 조연희가 하겠습니다.

2. 근황 및 개인 신상 (00:00:50~00:04:24)

면담자: 선생님 먼저 바쁘신데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해요. 먼저 선생님의 소중한 이름 먼저 말씀해 주시고 언제 어디서 태어나셨는지 또 현재 가족 관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구술자: 아니 원래 충남 서산에서 태어났고 인천에는 1969년도 상경해가지고. 또 뭘 말씀드리죠?

면담자: 그때 오셨고 가족 관계 가족 네네

구술자: 76년도에 결혼해 가지고 2남 1녀를 뒀죠.

면담자: 그럼 지금 적어주시기도 했지만 지금 인천 어디에서 거주하고 계시는지

구술자: 예 논현동 논현1동에 살고 있습니다.

면담자: 논현1동은 은퇴하고 가신 건가요?

구술자: 그렇죠.

면담자: 은퇴하시고 그 미출구에서 이제 정리하시고 이제 남동구로 이사를 가신 건가. 지금 이제 은퇴하셔서 이제 좀 시간이 여유로우실 것 같은데 지금은 또 어떤 일 하고 보내시는지 궁금해요.

구술자: 봉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면담자: 혹시 어떤 봉사 활동인지 알 수 있을까요?

구술자: 우리 남동구 봉사단에서요.

면담자: 자원 활동 이런 거 하시는 거

구술자: 예 교육하고 그것 또 방송통신대학교에서 원래 신청된 거는 방송통신대학교 봉사단인데요. 남동구에서 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면담자: 어떻게 또 이렇게 봉사활동을 또 이어가시는지

구술자: 우리 지금 지금 현재도 학생이고요. 예 그 학생회에서 봉사 봉사단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또 학교 임원으로서 봉사활동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임원들은 모두가 다 그 봉사의 마음들을 가지신 분들이라서 봉사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참여를 해야죠.

면담자: 지금 그럼 방송통신대학 그럼 은퇴하시고 나서 이제 방송통신대에 진학을 하신

구술자: 예 그 전부터 공부했죠 계속 계속 하고 있습니다.

면담자: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어떤 전공을 하고

구술자: 예 청소년 교육학을 전공했고요. 청소년 그다음에 문화 교양학을 전공했고 그다음에 사회복지학을 전공했고요. 그다음에 보건 환경을 전공했고 그다음에 지금 법학과 4학년에 재학 중입니다.

면담자: 되게 많은 다양한 분야에서 공부하고 계시네요.

구술자: 나중에 멀었습니다. 꿈이 우리 대학교가 참 좋은 대학교더라고요. 처음에 가서 한번 해볼까 하고 갔는데 중간에는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러다가 나중에 아 이거 꼭 해야 되겠다 지금은 그런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은 각오는 24개 학과가 있는데 지금 이제 5개 학과를 하고 있으니까 19개 과를 다 할 욕심으로 살고 있습니다.

3. 고향을 떠나 용현동으로 이주, 그 당시 동네 분위기 (00:04:43~00:12:34)

면담자: 진짜 멋지신 것 같아요. 아니죠. 배움의 끝이 없다는 거를 선생님을 통해서 또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진짜 아까 충남 서산에서 서산에서 태어나셨다고 하셨는데 이제 69년도에 그러면 바로 학익·용현동으로 오신 건가요?

구술자: 그때는 중구 중구 쪽에서

면담자: 처음에 가셨고 그러면 하긴 용현동에 오신 거는 혹시 언제쯤이십니까?

구술자: 용현동으로 온 지 한 80 85년도쯤 돼

면담자: 85년도 이때 오시게 된 게 그러면은 일 때문에 오신 취직이 돼가지고 오신 건가요?

구술자: 취직보다도 어찌어찌 하다가 그때는 뭐 살고 싶은 대로 가는 게 아니고 그냥 형편대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냥 골라서 골라서 그냥 형편에 의해서 그렇게 갔습니다.

면담자: 그러면은 이사를 오시고 난 다음에 유니드에 입사를 하신 거죠?

구술자: 맞습니다.

면담자: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85년도에 용현동으로 오셨다고 하셨는데 그럼 그때 용현동의 분위기는 좀 어땠어요?

구술자: 지금 생각 같으면 그런 걸 유심히 살피고 다녔을 텐데 그때는 그냥 회사만 그냥 회사만 시계빵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어떤

면담자: 그럼 약간 그 지역분들 중에서도 거기에 입사하고 싶어 하는 분들도 되게 많아

구술자: 많았죠. 쉽게 못 들어왔어요. 경쟁도 심했고 나중에 다른 공장도 마찬가지였지만은 목포 공장 이런 데 입사가 쉽지 않았죠.

면담자: 출퇴근만 하셨어서

구술자: 느낌 같은 게 없었고 또 그때 당시만 해도 이것저것 생각할 여유도 없이 그냥 시간만 되면 뭐 잔업하고 뭐 돈도 벌고 이러느라고 어떤 문화에 대한 걸 못 느껴서 지금 생각하면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어디 가서 좀 이런 문화 활동도 좀 하고 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도 들어요.

4. 한국파이프 입사 및 열악했던 현장 (00:12:35~00:15:01)

면담자: 네 저희가 사전 면담 때 처음에 인천 오셔서 한국 파이프에서 일하셨다고 하셨었는데, 그때 이제 그럼 그때가 69년 학익동에 오기 전에 이미 한국 파이프를 다니고 계셨던 중이신 거예요? 아니면은 85년도에 하일동에 오시면서 한국 파이프를 다니셨던 건지

구술자: 그때는 몇 달 안 다녔기 때문에 다른 직장 들어가기 전에

면담자: 잠깐

구술자: 예 잠깐

면담자: 그럼 한 그게 얼마 정도

구술자: 한 4 5개월 한 4개월 정도 됐어

면담자: 4개월 정도 그럼 그때도 한 그때도 한 80년대 84 85년 이쯤이시겠네요. 그럼 이게 유니드 입사하기 전에 다니셨던 회사인 거죠. 그럼 한국 파이프도 굉장히 큰 미출홀구에서 한국 파이프를 모르면 간첩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큰 회사였다고 들었었는데, 그때 그러면은 공장 지대가 되게 형성되어 있었을 거잖아요.

구술자: 그렇지.

면담자: 그때 좀 그 첫인상이 좀 어떠셨어요? 그때

구술자: 그때는 차를 마시겠습니다.

면담자: 네

구술자: 주로 아파트가 거의 하나도 없고요. 주택들인데 학익동 뒷산은 거의 뭐 판잣집에 가까운 그런 생활관이었고 또 한국 파이프 협회는 청구화공 또 한국협학 그런 거 등등해서 아주 열악한 환경이 열악한 회사들이 거기 몇 개 있었어요.

아주 열악한 아주 간지러울 정도로 환경이 환경을 오염시키는 그런 일도 이제 밤에 목격하기도 그런 시대였었어요. 그때 공 화학회사들이 대개 다 그랬지만 그때 당시에는 모든 처리들이 폐수나 환경 처리들이 아주 미흡했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좀 안 좋았어요.
그리고 민원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어떤 집단 민원성 그런 게 없고 개인 민원이나 몇 몇이 이렇게 민원이 들어가도 그게 또 목소리가 크게 들리지 않고 작은 목소리로 소화되고 이렇게 급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참 아주 좀 별로 안 좋았었어요. 지금도 아주 참 거의 우위성 도시로 변화하다시피 했는데 그때는 좀 그랬습니다.

면담자: 아무래도 그때 당시에는 이제 경제 발전이 더 우선시되던 시기라 그 환경적인 요인까지는 미처 신경을 못 썼던 그 시대였던 것 같아요. 근데 짧게 다니셨다고 하지만 거기서 이제 한국 파이프 같은 경우는 이제 코일을 다루면서 이제 작업을 하는 쪽으로 약간 위험한 업무들도 많았어 다고 하셨었는데 당시 산업재해보상보호법이 생겼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때 그 사전 인터뷰 때 말씀해 주신 게 다리가 부러지고 다치는 일도 되게 비일비재했다고 하셨었는데 혹시 그 현장을 목격하시거나 이런 일화를 들으신 게 있으실까요?
구술자: 예 목격을 했죠 이 파이프 다발이 이렇게 있으면 이제 크레인으로 이렇게 내릴 때 서로가 그 사인이 안 맞아서 다리가 미처 못 나온 상태에서 눌렸다든지 또 그 부위 공장에서는 또 프리하다가 손이 눌려서 잘린다든지 그렇게 해서 나왔는데 그때 적절한 보상들을 제대로 그때 당시만 해도 산업재해 안전 개념이 좀 조금 부족해가지고 좀 적절한 지금도 그때 당시에 그 프레스의 손이 눌렸던 사람 지금도 약간의 장애가 돼가지고 그 사람을 내가 알고 있는데 열악했어요. 지금 같으면 적절한 보상도 받고 그럴 텐데 지금 그 사람하고 큰 보상 같은 게 없어요.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면담자: 그때 사모님도 같이 맞벌이로 일을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때 두 분도 이렇게 좀 다치는 사고가 있으셨다고 하셨는데 그때는 어떤 상황이었는지 좀
구술자: 나는 괜찮았던 것 같고 식구가 좀 다쳤었는데 괜찮았어요. 그때 굉장히 위험했는데 사업주들이 그때 당시 지금 조금 전에 얘기한 거 같은 맥을 같이 하는 얘기인데 어지간히 다쳐가지고는 그냥 흔한 말로 아까징끼(일본어:赤チンキ=포비돈. 일명 빨간약) 바르면 되는
면담자: 빨간약 말씀하시는 거죠.
구술자: 일단 바르고 기다려 봐라. 그래 갖고 한 3 4일 지나면 그냥 몹시 아프면 또 병원에 간다든지 이렇게 1차 위험한 1차 제일 위험한 쪽으로 진단하고 낮추는 게 아니라 아주 작은 데서부터 놔뒀다가 나중에 크게 되면 또 이렇게 고치는 그런 그런 시대였어요.

면담자: 그럼 약간 그 사고가 계기가 돼서 좀 다른 회사로 옮겨야겠다라는 계기가 되었을까요?

구술자: 저는 원래 기능직으로 들어갔었는데 들어갈 때하고 얘기가 다르더라고요. 원래 보시다시피 튼튼한 체격이 아니어가지고 일하는 건 아주 어려서부터 싫어했고 소망이 일하는 건 싫었어요. 노동은 그래서 기능직으로 들어갔는데 기능직을 안 주고 노동으로 돌려요.
그럼 이 노동을 뭐 남들만큼 할 수가 있나요? 그쪽에 막 파이프를 무거운 거 들고 뭐 이런 거 막 들고 그러는데 힘이 너무 딸려가지고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3 4개월 버티다가 그냥 나왔죠. 저 집 식구도 그래서 따라서 나온 거죠.
면담자: 그럼 입사하실 때 아예 사모님도 같이 동반 입사를 하셨던 거예요?
구술자: 그랬었어요.
면담자: 한국 파이프에서 유니드로 가기 전에 좀 중간에 좀 여러 회사를 좀 잠깐 잠깐 있으셨다고 하셨었던 것 같아요. 그때 삼광유리에서도 잠깐 계셨었다고 하셨고. 자재 정리를 도우셨다고 그때 얘기도 좀 해 주세요.
구술자: 그때는 일용직이었을 겁니다. 아마 그냥 취업보다도 그냥 생활고로 인한 일시적인 일용직이었을 거예요. 아마 그때
면담자: 한 얼마 정도 일하셨어요? 여기서는
구술자: 1년 가까이 있었나 한 한 8개월 9개월 정도 됐을 겁니다.
면담자: 그래도 여기서는 조금 더 오래 있으셨네요.
구술자: 거기는 일이 힘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시기까지는 무슨 일이든지 한번 해보자. 힘이 닿는 데까지 그래서 했는데 거기 소소한 일들을 해야 되고 잡일 비슷한 거니까 힘이 우선 안 들고 물론 일 자체는 수준으로 봐서는 자급이지만 그래도 힘이 덜 들기 때문에 조금 더 있어도 되겠더라고요.
면담자: 약간 그 당시 굵직굵직했던 회사에 좀 이렇게 한 번씩 경험이 있으신 것 같아요. 진짜 선생님이 삼광유리하면 또 지금 분들도 삼광유리하면 기억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구술자: 그때 삼광유리 삼풍백화점 무너졌을 때 그때 그때 있을 때는 아닌 것 같은데 거기 삼광유리 직원이 거기 갇혀 있었지 않나요? 14일 만에 나오고 그러지 않았나요?
면담자: 그래요?
구술자: 그 남자가 14일 만에 나오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삼광유리 직원이 아닌가요?
면담자: 그래요? 한번 찾아볼게요. 저희 그거는
구술자: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잘은 모르겠는데

5. 유니드의 위상과 공장 수증기 민원 해결을 위한 노력 (00:15:02~00:22:29)

면담자: 그럼 선생님 삼광유리 계실 때도 85년도에 입사를 하셨던 거예요? 85에서 한 86년도까지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러면은 유니드에 처음 입사하신 거는 몇 년도
구술자: 유니드는 95년 94년이요.

면담자: 94년 그때 동서 지간인 친구분이 이렇게 따라서 옮겨가셨다고 그때 말씀해 주셨는데
구술자: 85년도 94년 한 8 9년 되죠. 네 그 사이에는 또 한국협화화학이라는
면담자: 그럼 여기서도 꽤 오래 계셨는데 여기서 같이 계시다가 용인으로 같이 옮겨가신 거예요?
구술자: 한국협화에 있다가 친구가 이쪽으로 오고 나는 거기 있다가
면담자: 동양화학으로 오셔서
구술자: 아니 아니야 조금 있다가 그 친구가 여기 유니드 창업을 하면서 동양학에서 나와가지고 그때가 84년도인가 그쪽으로 왔어요. 그 친구가 동양화학에 있던 친구인데 중간에 관뒀다가 한국 여파에 나하고 같이 있다가 유니드가 공장 다시 지으면서 그때 이제 무슨 역할이 필요해서 스카우트 돼서 왔죠. 그 친구가 그리고 나는 계속 거기 있다가 울산에 한국협화라는 데서 울산으로 공장 지으면서 현장 관리자로 갔다가 올라와서 다시 이쪽으로 이천으로 한국 여파로 복직됐다가 94년인가 95년도에 이 친구가 자기네 회사에서 여기 유니드로 와라 그래가지고 이미지들이 와서 같이 근무했죠.
면담자: 혹시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셨나요? 처음에
구술자: 아니요. 다른 저는 기능직에서 일했고 기능직에서 일했고 그 친구는 현장에서 현장 관리자로 일했고
면담자: 그럼 기능직이라고 하면 좀 어떤 업무
구술자: 장비
면담자: 장비. 그러면 한국협화학 쪽에서도 계속 쭉 기능직으로 있으셨던 거죠? 근데 유니드가 당시에 인천 전력 전체 전력 소비를 거의 다 사용했다
구술자: 뭐 그렇게
면담자: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공장 가동 시에 그런 그 소음이나 이런 것도 되게 심했을 것 같은데 좀 어떠셨나요? 근무하실 때
구술자: 그거는 저희들은 뭐 현장에 안 있고 그냥 기능직으로서 어떤 출하 업무 이런 거 담당하고 그랬기 때문에
면담자: 전혀 다른 쪽에 계셨구나

구술자: 그 뭐야 유니드로 말하면 뭐 그리고 그 동양화학이 이 널리 인식이 잘 되어 있잖아요. 72년도에 박정희 대통령이 와서 준공식 테이프를 끊고 그랬다고 그래서 굉장히 잘 됐고 그리고 한 80년 그러니까 84년도에 여기가 용인대가 개설되고 그 회사가 이제 좋다고 소문이 났었죠. 그전에는 동양학이 참 열악하고 그랬었는데 근데 전기를 많이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인천 시민의 가정 시민 가정용 3분의 2를 쓴다든가 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만큼 신빙성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얘기가 있고 하여튼 전기를 많이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저런 에피소드가 있는데 그게 주로 이제 전기 전기를 사용해서 그 소금을 녹여가지고 이제 제품을 생산하는데 그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수증기가 많이 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증기가 엄청 많이 났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저 공예 아니냐 그래가지고 시민들이 원성이 깊었죠.

그래가지고 시민들을 집단으로 이렇게 모이게 해가지고 공장 안에 들어와서 매연 나오는 굴뚝 앞에서 교육을 하고 해명을 하고 이게 수증기가 나쁜 수증기가 아니라 이게 물에 의한 수준이기 때문에 하나도 이상이 없다. 그리고 그 후로 1년에 한 번인가 두 번씩 고등학생이나 중고등학생들은 집단으로 한개반씩 해서 학교를 선정해서 환경을 회사 안에서 구경시키고 그랬어요. 이상 없다는 거 수증기에서 그래서 주민들을 이해를 시켰습니다.

면담자: 그거를 이제 유니드가 문 닫기 전까지 계속해

구술자: 계속했습니다.

면담자: 그럼 좀 그렇게 견학을 하신 분들은 좀 반응이 어떠셨어요?

구술자: 그래서 그 학교에 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다들 고개를 끄덕였다고 합니다.

면담자: 나쁜 게 아니구나 그래서 되게. 근데 사실 이렇게 일터를 공개한다는 게 사실 쉽지가 않은데 그만큼 민원이 굉장히 심했던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이제 뭔가 눈으로 보여줘야겠다 약간 이런 의지가 느껴지는 것 같아요.

구술자: 그런데 거기가 주민 밀집 지역이 아니어가지고 크게 민원은 없었는데 관심 있는 분들은 꽤나 이제 관심이 있었고 그렇게 주민이나 학생들을 불러다가 이걸 교육을 시켜야 될 만큼 심각한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회사에서 미리 사전에 차단하고 또 입주민들한테 오해를 불식시키자 더 큰 문제가 발생하거나 오해의 소지를 해소시키자는 의미에서 회사의 어떤 그 창의적인 머리에서 그렇게 사전에 그랬던 것 같아요.

면담자: 또 그만큼 그게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는 거에 대한 자신감이 또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서

구술자: 그리고 또 그때 당시에 이 개발이라는 게 5년 10년 앞으로 이제 발표하고 그러잖아요.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주위에 아파트가 들어선다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더 이제 차관을 해가지고 이제 주민들을 더 설득을 시킨 거죠.

면담자: 그게 한 몇 년도쯤

구술자: 몇 년도부터 시작했는지는 모르겠으나 문 닫기 한 해 전까지는

면담자: 그게 몇 년도인지 혹시 기억하시죠?

구술자: 문 닫을 때. 그거는 그거는 99 이제 95년 96년 15년 1 한 17년 17년도 정도 되는 2017년. 근데 그거는 가기가 하고 같이 왔던 사람. 네 그 사람하고 한번 물어보면

6. 3교대 근무 환경과 보수 정비 기간의 회식 (00:22:30~00:27:55)

면담자: 아 네네네네네 알겠습니다. 근데 전기를 그렇게 많이 쓰면 정전이 되면은 되게 큰일이 나는 거잖아요. 혹시 정전이 되거나 그랬던 일은

구술자: 자가발전

면담자: 자가발전이 잘 돼 있었구나

구술자: 큰 회사들은 전기에 의해서 어떤 문제가 크게 발생할 것 같은 이유가 있으면 자가발전을 바로 전환시킵니다.

면담자: 그럼 큰 사고나 이런 거는 없게끔 다 운영이 되게 철저하게 되어 있었네요.

구술자: 이렇게 있는데 가끔씩은 이제 정전으로 인해서 라인이 이제 이렇게 소금이 흘러서 이렇게 제품화되는 과정에서 뜨거운 수증기가 되어 갈 만큼 이제 뜨거운 게 필요하니까 갑자기 꺼지면 라인이 굳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전환이 늦어가지고 좀 굳어가지고 난리를 치죠. 현장에서 라인을 뜯어서 해체시키고 굳은 액체를 뜯어서 또 이렇게 하면 손해가 막심하죠.

그리고 아마 그 변전소도 또 이렇게 서구 변전소와 동부 변전소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전기가 다 나가지는 않잖아요. 그 변전소를 어떻게 전환시키는 그런 방법도 아마 나중에는 실시했을 것으로 보여요. 그건 내가 확실한 건 모르고 하여튼 자가발전은 되고 있었어요.

면담자: 365일 돌아가는 공장이다 보니까 유일하게 조금 노동하시는 분들이 쉴 수 있는 게 이렇게 보수 정비할 때라고 그렇죠 하셨었잖아요. 그때 그럼 주로 그때 어떤 걸 하셨어요? 이렇게 휴식을 취한 거나 아니면은 좀 현장 분위기라든가 근무자분들은 또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해요.

구술자: 그러니까 3교대 근무를 하게 되면은 서로가 이렇게 오고 갈 때 한 번씩 만나고 출퇴근 시에 한번 만나고 이게 얼굴만 맞대지 15년 20년 돼도 서로 의견 교환을 못하고 친밀감이 없어요. 근데 그때는 주간만 나오잖아요. 네 그럼 저녁에 시간이 되니까 한 5일이고 일주일 공간이 있으니까 그때 이렇게 서로 만나서 회식 회식을 한다든지 거의 다 그렇게 해서 아주 좋은 시간들을 보냈죠.

면담자: 그럼 그때 이제 회식도 하고 이제 약간 침묵도 다지는 그런 시간을 회사 자체에서 보내셨나 봐요. 어쨌거나 이제 출근은 해야 되는 그러니까 공장이 가동이 멈춰도 출근을 해야 됐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한 그때 직원분이 3교대 정도면 꽤 많았을 것 같은데 같이 근무하셨던 근로자분들 대략 몇 분 정도 되셨어요?

구술자: 한 300명 300명 그정도 300명 그 정도 됐을 거야. 아마

면담자: 기능직이라고 기능 쪽에서 있으셨다고 했는데 그 기능 쪽에도 직원분들이 한 몇 명 같이 일하신 분들이 몇 명 정도

구술자: 우리는 한 12명 정도

면담자: 기능직은 그렇게 인원이 많은 부서는 아니었네요. 기능직에 계셨고 그 현장에 계신 분들하고 좀 약간 소통 같은 것도 하고 그러셨어요? 좀 관계가 어떻게 되셨어?

구술자: 그럼요 소통 되죠. 우리는 이제 주관만 출근을 하니까 그 사람들하고 이제 교류가 돼야 돼요. 그 사람들이 하는 일에 대해 우리가 협조를 해야 되고 우리 하는 일을 그 사람들이 이렇게 협조하고 그래서 상부상조가 되죠.

면담자: 그럼 임원분들도 계시잖아요. 임원분들은 아무래도 본사 쪽에 계실 것 같은데 좀 현장에도 오시고 하셨나요? 그때

구술자: 임원은 사장이나 전무 전무 사장 이상은 본사 근무하시고 나머지는 다 공장에서 근무했죠. 네 공장장이라든지 네 전무 전무 전무급 이하는 다 여기서 근무했죠. 직원들도 한 40~50명 됐을 겁니다.

면담자: 그럼 뭐 이렇게 창업인 이런 때 같은 행사를 크게 하기도 하잖아요. 그때는 내려오시거나 그러진 않으셨었어요?

구술자: 본사에서요

면담자: 뭔가 큰 행사를 하거나 이럴 때

구술자: 그건 물론이고 그 회로도 가끔 오셨죠?

면담자: 격려 차원이라든가

구술자: 그럼요. 회사에서 상현이 이런 거 있고 그러면 뭐 한두 달에 한 번씩 온다든지 뭐 그렇게 돼 있어요.

면담자: 굉장히 좀 관리를 좀 되게 잘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그런 견학이나 이런 게 괜히 나온 게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좀 깨어 있다 약간.

구술자: 그런데 거기는 참 특이한 회사입니다. 아주 청결을 최우선으로 하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요. 그래서 누가 아까 누가 오시면 또 청소도 잘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가정도 마찬가지지만 그건 물론 아주 반질반질합니다. 아주 그냥

면담자: 공장이 그러기 사실 쉽지 않은데...

7. 노조 활성화와 임금 상승, 그리고 퇴직금 누진제 (00:27:56~00:33:54)

면담자: 70~80년대 초반에는 대우자동차나 인천 판유리에 비해서 급여가 굉장히 적었었다고 유니드가 그렇게 말씀해 주셨었는데

구술자: 70년대 후반 80년대 초는 동양화학이었고 80년대 이제 네 84년 이후부터 이제 유명이 됐는데 네네네 그때는 참 그것도 강하고 같이 왔던 친구한테 동양학에 원래 있다 아마 적어서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분한테 물어보면

면담자: 이거는 네네네 그때 같이 듣다 보니까 이게 섞였나 봐요. 조금 내용이 이거는 그러면 다음에 하고 그래도 유니드 입사하셨을 때 월급은 괜찮으셨어요?

구술자: 괜찮았죠?

면담자: 그때는 조금 이제 어느 정도 맞춰진 상태였나 봐요. 다른 데랑

구술자: 이게 845년도 초창기에 그러니까 84년도인가 그렇게

구술자: 공장 문을 열었는데 85 86년까지는 좀 그랬고 87년도에 그때 한참 민주화 운동 어쩌고 아주 노조가 활성화되던 해였거든요. 소위 흔히 하는 말로 으쌰으쌰 많이 하더라고 이제 하여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뭐 그런 거 못했잖아요. 별로 아주 강하게 못하다가 눈치 보이니까 87년부터 이제 민주화 바람 불어가지고 시작하기 시작하다가 88년도 89년도부터 임금이 상당히 상승해 가지고 90년대 체는 상당히 좋았어요. 이게 아주 좋았고 2천년대 들어가지고는 뭐 아주 인천에서 손꼽히는

면담자: 누구나 가고 싶어 하는 회사다

구술자: 그렇죠.

면담자: 혹시 죄송하죠. 실례가 아니라면 입사했을 때 월급이 얼마였는지 기억하시나요?

구술자: 그때 그때 월급이 얼마나 됐을까 전혀 기억이 안 나네.

면담자: 그때 이미 자녀분들 태어나서 이제 한창 키우실 때였던

구술자: 그때 그때 예 그렇죠

면담자: 그래도 아이들 키우면서 생활하기에는 부족함이 없으셨던 거죠. 그때 그 정도 월급 그 월급으로

구술자: 월급으로 일단 그렇죠. 크게 뭐 저축 저축 조금씩 해가면서 살았어요. 그때 당시에 얼마였을까

면담자: 인터뷰하시면서 기억나시면 알려주세요.

구술자: 퇴사할 때는 기억이

면담자: 얼마 마지막 월급이 얼마셨어요? 그러면

구술자: 그때는 애들이 대학 다니고 또 뭐 등등 특별 장려금 해가지고 한 연봉이 한 8~9천 됐습니다.

면담자: 그럼 되게 복리후생도 굉장히 잘 되어 있었네요.

구술자: 잘 돼 있었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천에서는 세 번째 안에 드는 뭐 아니 세 번째가 10선 코락 안 해 드는 회사다. 이렇게까지도 얘기했고

면담자: 진짜 퇴사하기 싫은 그런 회사였을 것 같아요.

구술자: 퇴직금도 누진제가 돼 있었어요. 인천에서는 한두 가운데밖에 안 됐을 겁니다. 아마 누진제 그런 3년 근무하면 하나씩 더 준다든지 10년 근무하면 5개를 3개 4개를 더 준다든지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회사가 거의 들어보지도 못했지 별로다.

면담자: 지금은 찾을 수가 없는 회사

구술자: 그렇게 돼 있었어요. 지금도 아마 지금 울산으로 갔는데 지금도 아마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면담자: 아 맞아요. 그때 보너스가 1200%에서 1500%까지 받으셨다고 그때 말씀해 주셔서 되게 깜짝 놀랐었는데

구술자: 1200%는 유니드가 그렇게 받았고 1500%까지는 동양화

면담자: 동양화학이

구술자: 1500%까지 받았다고 그래요. 근데 이게 얼마만큼 사실인지는 모르는데 거기는 이 융이 돼서 1200%까지는 받았고

면담자: 그때 좀 어떠셨어요? 너무 궁금해요.

구술자: 엄청 좋았죠

면담자: 1200%면은 가능 상상이 안 되는 금액인데

구술자: 두 달에 한 번씩 보너스가 나오고 600%잖아요. 명절 때 명절 때 100%씩 나오고 구정 추석 아니에요 800%죠 그리고 연말에 가서 성과급 그래갖고 300에서 400% 나올 때가 있었거든요. 보통 한 300% 나 그러니까 총 1100이나 1200까지 나와요.

면담자: 그러니까 진짜 뭔가 한 번 들어가면 진짜 뼈를 묻고 싶은 그런 회사였을 것 같아요.

구술자: 세습제입니다. 아들들 동생들 다 불러들이고

면담자: 그게 약간 장단점이 있긴 하지만 어쨌거나 계속 이렇게 물려받아서 하는 조금 더 탄탄하게 가는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진짜

구술자: 회사가 운영이 잘 되고 아주 복지 후생이 잘 되고 아주 선한 기업이었었죠. 저희들이 그런 거 회사 다니는 사람들이 대개 회사는 뭐 돈 남기면 자기들이 뒤로 다 챙기고 뭐 이런 소리들 많이 하는데 우리 유니드 다녔던 그 직원들은 그런 사람이 별로 없을 겁니다. 아마 아주 복리후생이 잘 되고 아주 좋은 회사였어요.

7. 파격적인 복리후생 사원 아파트(사택) 운영 (00:33:55~00:39:31)

면담자: 그러면 이직률이 굉장히 적었을 것 같아요. 한 번 들어오신 분들은 계속 남아 있고 싶어 하셨을 것 같은데 다른 회사로 이직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셨어요. 그때

구술자: 더러 있긴 있었는데 더러워 1년에 몇 번씩 있었는데 결국은 어떤 가문이 소리에 의해서 이직한 경우가 더 많더라고요. 한 90% 이상이 나간 걸 후회하더라고요. 그리고 복지후생을 얘기하다 보면 좀 빠진 게 있는데 우선 입사를 하면은 정직원이 되면은 사원 아파트를 지

면담자: 사원 아파트

구술자: 19평에서 22평짜리를 자기가 생활력이 낮아져 가지고 집을 살 때까지 그러니까 뭐 30세 미만에 들어와 가지고 집 장마를 못 했다든지 또는 뭐 뭐 등등해 가지고 정년퇴직까지 살고 싶으면 살았어요.

면담자: 사택인 거죠. 사택 혹시 어디였는지 기억나 연수동이요? 연수동 혹시 동춘 쪽인가요?

동춘동 아니면 아니 연수동

구술자: 연수동 이쪽이 어디냐면 적십자병원입니다. 적십자병원 있는데 그 앞에 연수 3동이지 거기가

면담자: 연수 3동

구술자: 거기 있었고 만수동에 있었고

면담자: 아

구술자: 그다음에 송도 무슨 무슨 동인가?

면담자: 옥련동 옥련동

구술자: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면담자: 옛 송도 말씀하시는

구술자: 아니 구성도 거기에도 몇 채 있었어요. 몇 채

면담자: 사택을 그렇게 많이 받고 있을 정도면 진짜 되게 큰 회사 진짜

구술자: 글쎄요. 그게 별로 큰 회사는 아닌데 일단 그렇게 복지 후생을 운영자 기업인들이 아주 선한 마음을 가지신 거죠.

면담자: 임대 생활하듯이 월세 내고 살았던 건가요? 아니요. 그냥 그냥 보증금도 없이

구술자: 보증금은 없죠. 그 없었던 걸로 알아요. 그리고 1~2년에 한 번씩 내부 수리해 주고 수도가 고장 났다든지 뭐 이상이 있다든지 자연스럽게 고장 난 거 그런 거는 다 보수해 주고 그랬죠.

면담자: 그럼 보증금도 없고 월세도 없고 그냥 관리비 정도만 내가 쓰는 물 수돗세 뭐 이런 것만 내고 사는 거죠. 이거를 그럼 사택을 문 닫을 때까지 운영하셨던 건가요? 아니 그러면 아니 그 조금 약간 궁금한 게 그럼 이게 퇴사할 때까지 쭉 살고 싶으면 살아도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회사가 문을 닫으면 이 사택도 더 이상 살기가 어렵게 돼서 될 것 같은데 그럼 그분들은 그러면 그때 다 집을

구술자: 당연히 내놔야죠. 그래갖고 지금 처분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다 팔았다 팔아야지 뭐 사원 들죠. 근데 팔았을 거예요. 아마

면담자: 정확히 어느 위치인지는 아파트 이름 같은 건 기억이 안 나시는 거죠 지금

구술자: 연수 주공 아파트예요.

면담자: 연수 중공

구술자: 주공 2차 아파트

면담자: 연수 주공 2차 아파트, 만수동도 만수 주공 만수 주공이 거기 송도 송도는

구술자: 그 정도는 아마 빌라라고 그러는 것 같은

면담자: 대단하다. 진짜

구술자: 그런 회사가 거의 없었고 우리 사원 아파트 사원아파트 저도 사원 아파트 살았는데

사원 아파트 바로 앞에 대우자동차 대우자동차가 그걸 실시하더라고요.

면담자: 거기서도 이제 사택

구술자: 사택인데 거기는 보증금을 받더라고요.

면담자: 그때 그러면 그 사택 사셨을 때 연수동 쪽에 사셨던 거예요? 그 진짜 그 사택에 살면서 일하신 분들은 진짜 돈 많이 모으셨겠어요? 진짜 저축을 많이 하셨어요?

구술자: 그 정도로 지금 이 물론 그렇게 현실화되고 처우가 좋아졌던 건 2천년대 이후니까 그 전부터 그렇지는 않았으니까 다 돈 벌지는 않았죠.

면담자: 그러면 이 사택 사원 아파트를 한 게 2천년 후에 들어와서 했던 거

구술자: 아니 그거는 아마 아파트 뭐야? 공장 지으면서 아마 했을 거야. 84년도 85년인가 83년인가 하여튼

면담자: 아예 처음부터 이런 복리후생을 생각하고 이거를 같이 하셨구나. 진짜 지금은 이런 거 찾기 너무 쉽지 않잖아요. 회사 이제 근로자들이 알아서 해결해야 되는 것들인데

구술자: 예 그렇죠

면담자: 뭔가 같이 성장하고 근로자들도 같이 성장하고 으쌰으쌰 해 보자는 그런 창업주의 그 마음이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진짜

구술자: 그럼요. 아주 참 훌륭하신 사업주들이었어요.

8. 학익동 저수지 새인천 풀장의 기억과 에피소드 (00:39:32~00:43:59)

면담자: 그럼 그것 또한 또 이렇게 학익동에 저수지로 해서 새인천 풀장도 이렇게 만들어 있었는데 거기도 한번 가보셨어요?

구술자: 많이 가봤죠? 여름에 거기서 생활했죠

면담자: 아이들 데리고

구술자: 그럼요. 애들 어렸을 때 그리고 티켓이 나오거든요. 직원들한테는 풀장을 공짜로 이용했죠.

면담자: 여름쯤에 이제 개장 앞두고 이렇게 티켓도 뿌리고 막 이래서 이랬나 봐요. 그래서

구술자: 직원들은 다 이제 즐길 수 있도록

면담자: 되게 앞서가는 회사였던 것 같아요. 진짜 예 그렇습니다. 그럼 멀리 안 가도 여름 휴가를 해결할 수 있었던

구술자: 그렇죠 별로 안 갔죠. 그때 그때만 해도 멀리 가면은 여행이었고 지금은 일상이 돼버렸지만 서울 부산 어디 하루에도 갔다 오고 그러지만 그때는 등급이 쉽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떠나기가 어려웠는데 바로 우리 직원들은 여기가 풀장에 있으니까 여기서 즐겼죠.

면담자: 그래서 정말 이렇게 실 사용하셨다는 분을 만난 거는 그렇죠 저희가 인터뷰를 이렇게 하면서 사용하셨다는 분들은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구술자: 저도 생활하면서 이렇게 직원들한테 복지 위생을 후생을 훌륭하게 하신 그 업주들은 못 봤습니다. 얘기를 못 들어봤어요.
면담자: 그럼 보통 이렇게 풀장 개장을 하면 한 몇 명 대략 얼마만큼 이용을 하셨는지 기억이 나세요? 좀 약간 되게
구술자: 인원 인원
면담자: 한 규모라든가 이런 느낌 지금 떠올려봤을 때 그때 규모나 이용자들의 모습이라든가 이게 좀 기억이 나세요?
구술자: 호수들이 여기 저 지금 저수지 지금 다 막혀 있죠 네네네. 처음부터 끝까지 다 포장이 있어요. 일부러 저희
면담자: 규모가 엄청 컸네요.
구술자: 그래서 저수지 바로 위에가 이제 이렇게 위에다가 이렇게 풀장을 만들었거든요. 뭐가 놀이터 비슷해서 한 평수도 잘 모르고 하여튼 많았어요. 복잡했어요.
면담자: 주변 분들도 거기에 이용을 많이 하셨던 거죠. 물놀이장은
구술자: 그러니까 시민들 주민들

면담자: 그때 그 저수지 매립할 때 물을 뺐었다고 하셨잖아요. 맞아요. 물 뺄 때 실종됐던 차들이 발견돼서 또 놀랐던 일이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술자: 그때 나도 직접 목격을 했는데 참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한 대는 사람이 없었고 한 대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발견되기 7년 전인가 8년 전에 가출을 한 사업에 실패하고 가출을 한 어떤 가장이었었다고 그래요. 학익동 이 동네 사람이었다고 그래요.
면담자: 그러면 거기가 차가 드나들 수 있는 그런 곳이었어
구술자: 예. 난간이 없었어요. 그냥 저쪽에서 와가지고 속력만 내면 저만큼 떼오는 거 그런 잘못된 거. 거기 참 그런 거는 왜 안전 장치를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가고 돌면 당연히 좀 위험할 텐데 좀 이렇게 벽이라도 쌓던지 그래야 되는데 그걸 아무것도 안 해가지고 그냥 병 날라가는
면담자: 지금 그런 차들이 좀 여러 대 있다고 하셨던 것 같아.
구술자: 한 대 두 대 있었어요.
면담자: 좀 발견했을 때 좀 깜짝 많이 놀라셨을 것 같아요. 진짜
구술자: 그래 그걸 또 뭐 국과수 수사하고 한다고 그러니까 작업 중단 할 수 있니까 차를 들어다가 그 위에다가 사람도 아니고 위에다 넣어가지고 아주 섬뜩섬뜩했잖아. 사람은 그냥 그걸 다 수거해야겠지만 그 차를 어스란히 그 위에다 올려놔가지고 아주 좀 이렇게 출퇴근할 때 섬짓섬짓하고 혐오감도 느끼고 그랬죠. 한참은 그런 일도 있었어요. 에피소드 제
면담자: 이게 근무를 마치고 어쨌거나 그 저수지 쪽을 지나가셔야 됐던 거잖아요. 퇴근을 하

려면

구술자: 이제 3교대 하면 11시 11시에 나가야 되잖아요. 그냥 섬뜩 했어요.

9. 학익동·용현동의 과거 풍경과 급격한 도시 개발 (00:44:00~00:46:56)

면담자: 2012년이면 그래도 좀 이제 최근 거의 최근인데 그 당시 좀 그 주변 학익동 주변이나 용현동 그 분위기는 좀 어땠어요? 마을 분위기가

구술자: 용현동 분위기 그때 그때 용현동은 참 발전이 아직 덜 됐었죠.

면담자: 처음 입사했을 때랑 크게 달라진 게 없으니까

구술자: 별로 별로 없었어요. 용현동은 발전이 아주 늦게 됐어요.

면담자: 아파트도 그때 당시에는 많지 않았던 것 같은데 제 기억에는

구술자: 네 아파트 별로 없었어요.

면담자: 지금은 막 진짜 천지가 개벽했다고 할 정도로 아파트도 많아지고 정리가 되게 많이 됐는데

구술자: 그럼요. 지금은 한 말하자면 한 2016 7년도부터 용현동 쪽도 발전이 시작해가지고 이제 대우자동 대우전자 있던 근처에 아파트가 막 생기면서 쭉쭉 불어나면서 이동 운동이 아주 획기적인 발전이 왔죠. 이제 학익동 동양방직 그 회사 그 삼성제강있던 자리 지금 무슨 거기가 무슨 아파트죠? 장미 아파트 그게 한 845년도 생기고 그 뒤로 그런 비슷한 아파트 생기면서 그 후로 점점점점 1~2년에 한 번씩 점점점 불어나기 시작해

면담자: 장미 아파트도 저층 아파트

구술자: 예 저층이잖아요.

면담자: 거의 저층으로 생기다가 이제 대우전자 근처에 아파트 생기면서 그때부터 좀 고층 아파트가 많이 생겼어.

구술자: 예 그렇습니다.

면담자: 그럼 이제 진짜 하일동이 그렇게 막 변화가 시작된 건 사실 얼마 안 돼가지고 그죠 최근에

구술자: 10년 사이에 그렇게 10여 년 사이에 급성장을 하고 그 변화가 왔습니다.

면담자: 그 동양화학 주변 매립지 땅에 흙이 좀 생기면서 이제 주변 직원분들이나 마을 분들이 또 이렇게 텃밭처럼 이렇게 농작물을 키웠다고 말씀해 주셨었는데 그때 좀 어땠는지 좀 같이 얘기 들려

구술자: 텃밭이요

면담자: 말뚝 박아가지고 이렇게 그랬다고 씨뿌려 가지고 농작물 키우고 이래서

구술자: 그랬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같이 왔던 친구들 그 친구한테 물어보면.

면담자: 네 알겠습니다.

10. 동양화학 부산물(폐기물) 처리 과정과 매립지 비화 (00:46:57~00:50:52)

면담자: 이 부산물도 동양화학이라 그렇죠

구술자: 부산물 네 그것도 참 골칫거리였지

면담자: 그때 이제 이걸로도 이제 좀 말이 많았었다고 했었는데 이게 매립되면서 이제 또 주변 근무자들도 그렇고 주변 주민분들은 또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었는지 또 근무자 입장에서도 또 어떤 생각을 가졌었는지 궁금해요.

구술자: 그게 전국 그 폐기물 처리 업자들한테도 의뢰를 하고 아마 많은 청취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리를 하려고 아주 골칫덩어리였거든요. 그러다가 그게 돈도 많이 들고 쉬운 일이 아니니까 그리고 몇십 년 간 쌓아둔 거니까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고심 끝에 여기다 집어넣은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저수지 그 안에 땅을 파고 거기다 넣었다는 소리 넣은 거 넣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면담자: 그래도 뭔가 처리를 하려고 굉장히 노력은 많이 하셨었어.

구술자: 그렇죠 부단히 노력을 많이 하셨던 걸로 알아요. 소문이 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친구 중에 하나가 그 부산물 전국에서 처리하는 친구가 하나 있는데 그 친구도 와서 어떤 자문을 받았다고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야 이게 굉장히 어렵구나 처리하는 거야. 그래서 그때도 알았어요.

면담자: 사실 지금 지금은 뭔가 방법을 찾았을 것 같은데 그때 당시는 더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 쪽으로는 진짜 양도 굉장히 방대해서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었다고 또 하시더라고요. 그걸 처리하는데 그럼 좀 사람 동네분들은 그 매립되는 거에 대해서 어떤 민원이나 이런 건 딱히 없으셨었어요

구술자: 크게는 없었고 구체적으로 주로 이제 폐기물 처리가 폐기물 처리하고 이전을 하면서 대책 주로 이제 그 직원 대책 이런 것은 다 이제 이미 다 협의가 돼서 하고 싶은 사람들이 하고 뭐 이렇게 그런 복지 쪽으로 이제 해결이 되는데 폐기물 쪽은 그것도 적절한 대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래서 건져서 다시 물을 빼가지고 적재해놨다가 이렇게 처리한다고 적절히 해가지고 아니 원만히 한참은 좀 그런 얘기가 오고 갔는데 주민 대표들이 환경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와서 얘기를 많이 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게 잘 처리해가지고 나중에는 크게 문제가 없었다고 그래요.

면담자: 거기 그 물이 있는 쌓여 있던 그 물이 옥빛이었다고 하는데 그 보신 적이 있어

구술자: 거기 고속도로 가다 보면 완전 옥빛이잖아요. 옥빛이에요. 고속도로 타고 가다 보면 그냥 몇십 년 쌓였던 거야. 그리고 이분들이 오너들이 이회림 회장 참 이 기업하는 사람들이 하늘이라는 사람들 같아요. 벌써 60년대 후반에 이 바다를 딱 정해 대개들은 땅을 사가지고 부지를 사가지고 대개 공장도 짓고 그렇게

면담자: 그러잖아요.

구술자: 조금 걱정해. 근데 여기는 순전히 바다를 매립해가지고 이 이예림 회장에 아주 하늘이 낸 사람인 것 같아 선견지명이 뛰어나신 분 같아요.

11. 이회림 회장과의 일화와 송도고등학교 졸업식 기억 (00:50:53~00:53:40)

면담자: 혹시 실제 이회림 회장님 뵈신 적도 있으세요? 그럼요. 혹시 그 회장님과의 특별히 기억에 남는 일화 같은 게 있으시면 들려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구술자: 저기 송도고등학교가 재단이거든요. 동양학에 재단인데 거기 졸업식 때 오셨는데 우리 아들이 거기 졸업했거든요. 오셔가지고 졸업식 축사를 하시는데 완전히 그 뭐랄까 선인 같은 말하자면 뭐 흔히 속된 말로 하면 난 산실장 같은 신령님 같은 그런 느낌. 물론 오너여서 존경스럽기도 했겠지만 워낙 말씀이 말씀과 모습 자태가 아주 훌륭하신 분이더라고요. 점자 않으시고 예 아주 자태 그 자체가 잠잔하시고 그러시잖아

면담자: 또 이렇게 아드님 졸업식에 또 이렇게 축사해 주셔서 더 남다르게 느껴지실 것 같아요.

구술자: 예 그랬을 수도 있죠.

면담자: 혹시 그때가 몇 년도였을까요?

구술자: 1999년이나 2천년도 될 것 같은데요.

면담자: 이거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런 일화가 또 어떻게 보면은 근무지와는 또 별개의 또 이렇게 일화인 거잖아요. 에피소드가 또 이렇게 그럼 약간 되게 이 회장님은 굉장히 또 활동을 되게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또 직접 졸업식에 가셔가지고 축사도 하실 정도면 애정을 많이 가지시고 계신 것 같아요. 회장님이요. 예

구술자: 우선 자기 본인은 당신의 고향이 개성인가 거기라고 그랬대요. 맞아요. 거기에 송도고등학교에 있었대요. 송도 중고등학교 그래서 이쪽으로 오면서 송도 중고등학교 답동에 있었거든요. 근데 송도고등학교가 70년대 후반이나 80년대 초에 이쪽으로 왔어요. 그 전에는 답동에 있었어요. 지금 송도중학교에 있는 그 자리 옆에 있었어요. 여기 신흥동이죠. 여기가 네 여기 다 70년대 후반인가 80년대 초에 이쪽으로 그러면서 이제 중국어 등학교 졸업식에 다 다니셨습니다.

면담자: 우와

구술자: 이제 나는 얘기만 듣고 실제 고등학교 졸업식 때 갈 때 진짜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 우스운 말로 하느님 만난 것 같았어요.

면담자: 빛이 막 이렇게 후광이 나셨나 봐요.

구술자: 더 크게 보이고 위대해 보이고 그러시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11. 과거 골목길의 삶과 학익삼거리 회식 문화 (00:53:41~00:59:11)

면담자: 정말 각별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진짜 아까도 회사 집만 다니셨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이제 공장 밖을 나오면은 이제 그 마을 골목으로 들어서게 되고 또 이렇게 회식도 하게 되면 그 마을 주변에서 했을 것 같은데 그 당시 동네 풍경 어렴풋하게 기억나는 게 있으세요?

구술자: 특히 저도 그때는 좀 애들을 낳으려면 한 10명쯤 낳아야 되는데

면담자: 그게 좀

구술자: 근데 3명을 많이 낳았다는 얘기를 이렇게 분장하는 겁니다. 생활하기가 참 어려웠어요. 그래갖고 뒷동네 정말 옆집에 돼지 키우고 그런 집에서 살았었어요. 애들하고 이제 방앗간에서 이제 5명이서 살고 지금까지 했어요. 6명에서 방학까지 살고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는 아주 참 힘든 생활이었는데 그 골목에 들어가면 뭐 대게 그랬어요. 좀 뒷산 정도 보면은 대통령 뒤쪽으로 그냥 골목으로 겨우 둘이 둘이 지나가다가 어깨 툭 치고 그럴 정도의 거기에서 몇 년씩 생활하고 주로 생활 모습이 그랬어요. 그리고 스위스가 뭐 머리를 달까 말까 하는 스위트 집집 주로 그런 거였고 그런 집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쪽 모습이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회식 같은 거 할 때는 저 학익 삼거리에 가면은 무슨 식당이라고 있는데 주로 거기로 다 모여요. 웬만한 회사 사람들은 거기로 다 모여요.

면담자: 백반집 같은 느낌이었나요?

구술자: 그 뭐랄까 고깃집 같은 거 고깃집 술집이죠. 말하자면 고깃집 술집 그런 데를 거의 다 몇 개 회사 사람들이 다 모이고 그랬어요. 여기서 아주 거기가

면담자: 거기 단골이셨나 봐요.

구술자: 그러니까 대개들 그래요. 큰 푸짐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별로 없었고 그 집이어 가지고 그 회사가 상당히 많이 사람들이

면담자: 그럼 거기가 약간 뒷고기 같은 거 쓰는 그런 식당

구술자: 여기요 약간

면담자: 정육점 하면서 하는 그런

구술자: 그때는 그런 데가 없었죠. 별로 지금 이제 지금은 그런 데가 들어 있지만 이제 그런 푸짐한 뒤로 한 데 모이게 지금이야 뭐 음식점들이 한두 번 가면 안 가잖아요. 그리고 비 누가 좀 잘 된다면 옆에 또 차리고 맞아요. 그다음에 또 차리고 이러잖아요. 냉면집에 뭐 잘 된다면 또 차리고 그래가지고 맞아요. 몇 년씩 몇 개 회사들이 막 모아서 다니는 그런 데가 별로 없어요. 그때는 그랬었어요.

면담자: 그럼 아무래도 일이 고되다 보니까 퇴근을 그러니까 한잔 걸치고 좀 가시거나 집에 가시거나 약간 그런 거는 없으셨어요?

구술자: 그런 거는 별로 난 술도 안 좋아하면서 이제 그런 것도 가끔 끼긴 했는데 그런 것도

있었죠. 그리고

면담자: 칼퇴하셨거든요.

구술자: 표창을 받아야 되나

면담자: 되게 칼퇴근하는 아버지가 흔치 않았던 시절인데

구술자: 그래도 이제 다 쫓아다니긴 했어요. 그래도 날새기도 그래서 이제 주말 되면은 주로 먹고 가서 또 가서 딱 보면은 그때 당시만 해도 이 저거잖아요. 계좌 이체를 안 하잖아요. 봉급을 아니 주머니에 봉급 날려면 뻥뻥하거든요. 거기 가면 뭐 바글바글합니다. 그냥 그러니까 그날 거기서 먹고 2차까지 3차까지 갔다가 보험금 나 다 날리고 하는 사람 보면 그런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었어요. 진짜 삼척까지 가서 저 숭의동 가서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술 먹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일도 있고 그런데 하여튼 거기가 플랫폼이었어요.

면담자: 핫플레이스군요. 진짜

구술자: 직업

면담자: 그런 분들의 근로자분들의 숨통을 트이게 해줬던 그런 곳이었나 봐요. 진짜 그 유니드가 굉장히 열 손가락 안에 드는 회사라고 말씀해 주시기도 했지만, 당시에도 이렇게 뭔가 회식 자리나 이렇게 가서 나 유니드 다녀 이렇게 말하면은 조금 더 대우가 달랐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셨어요?

구술자: 이쪽 중구 쪽에서는 무조건 외상이 좋다고 그래요.

면담자: 외상

구술자: 저 유니도 다닙니다. 그러면 아 드시라고 지갑 없이 와도 된다고 아주 좋은 회사니까 아주 아주 신용이 굉장히 좋았답니다. 아주 그냥 말만 하면 그땐 그리고 웬만하면 또 외상 아니면 또 장사를 별로 돈이 별로 없었을 테니까 봉급날 꼭 갖다주고 그러거든요.

면담자: 달아놓고 먹고 막

구술자: 그러니까 그게 예상이죠. 저도 예상이 많았어요. 그래갖고 봉급때 갖다주는 일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 유니드는 유드에서 왔다 그러면 그냥 패스 그랬다라고 봤다.

12. 변화된 도시를 바라보는 감회 (00:59:12~01:06:27)

면담자: 그만큼 신뢰가 가는 그런 탄탄한 회사였던 것 같아요. 그 위상이 그만큼 되니까 믿고 줄 수 있는 그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지금 동양제철화학 부지나 이렇게 저수지 다 매립이 돼 가지고 이제 아파트와 공장으로 공원으로 이제 바뀌고 있는데 오랫동안 이제 그 지역에서 일을 해오신 거주하시면서 일을 해오신 입장에서 좀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좀 감회가 새로 남다르실 것 같아

구술자: 그렇습니다. 아주 감회가 깊고 이게 전에는 20년 30년 가야 어떤 세월이 변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10년이 멀다 하고 세월이 굉장히 급격하게 달라지는 모습들이 아 세상이 많이

발전했구나. 그리고 우리가 옛날에는 공장 굴뚝에서 연기가 나고 판잣집 투성이고 그냥 잘 하면 빌라 이런 게 들어섰는데 지금은 아주 갑자기 이렇게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고 인천에 40~50층 아파트가 들어서고 그러면서 처음에는 80년대 중반 84년도만 해도 장미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이쪽 지역에서는 그래도 잠시 신도시구나 하는 느낌이 들었는데 이제는 그거는 옛날로 돌아가고 재개발 지구로 돼버리고 맞아 한 10년 내로 이거 이쪽이 참 많이 좋아졌구나. 세월은 좋아졌는데 나이는 이렇게 먹었으니 어떤 이런 회의감도 들고 이런 저런 감회가 이렇게 흑백이 왔다 갔다 합니다.

면담자: 일부러 또 찾아오시기도 하시나요? 이렇게 일했던 데 한번 둘러보시거나 이렇게 또

구술자: 그렇지는 그럴 시간이 별로 없어요. 워낙 그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연평도 백령도 뭐 등등 각 지역마다 다 이렇게 봉사활동을 돌아다니기 때문에 지금도 사실은 바빠요.

면담자: 바쁘신데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진짜

구술자: 여기 또 부원장인가 정현숙 씨가 또 우리 또 동문이기도 하고 참석을 해야죠. 그리고 또 문화적인 거라니까 또 내가 또 문화 교양을 전공을 했고 아마 처음 또 이런 인터뷰도 그냥 배운 거 한번

면담자: 그래서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진짜 어떻게 보면 평생의 의사였던 유니드에 대한 마음이 좀 남다르신 것 같아요. 선생님의 생애에서 유니드가 가지는 의미가 뭔가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구술자: 기업인들 중에는 정말 가장 뛰어난 기업인이고 나를 살게 했고 우리 가족을 살게 했고 또 이 세상을 정말 선한 사람으로 만들어준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도 그래서 앞으로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한테도 그렇고 주위 사람들한테도 기업인에 대한 의상이나 이런 걸 얘기해 줄 때 꼭 이 기업은 필리 긴 시간을 할애해서 얘기하고 싶은 그런 회사

면담자: 좀 옮겨 갔을 때 좀 많이 아쉬우셨을 것 같아요. 인천에서 떠난다고 했을 때

구술자: 그렇긴 했죠.

구술자: 그렇긴 했는데 워낙 제가 했어요. 또 정년퇴직하고 다른 기능직으로 한 3 4년 더 있었어요.

면담자: 어디에 있으셨어요? 그때는

구술자: 출하부에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애정이 더 깊죠.

면담자: 은퇴하셨지만 완전한 은퇴가 또 아니셨네요. 그럼 최종 이제 딱 일을 그만두신 건 몇 년도에 그만두신 거세요?

구술자: 2013년 13년도 12년 말 12년도 말인 것 같은데

면담자: 사실 이렇게 오래 일하다가 일을 딱 그만두면은 좋기도 하지만 또 그 허탈함도 많이 느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좀 어떠셨어요? 퇴사하시고 이제 은퇴하시고 나서

구술자: 은퇴하기 전에 미리 또 생각을 많이 했고 너무 서운해하지 말자 너무 아쉬워하거나 너무 일을 갖지 말자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렇기도 하지만 또 거기서 다른 일을 해가면서 퇴직하고 3 4년 했으니까 그런 저런 큰 미련은 없죠. 당장 퇴직하고 땡 하고 나왔으면 엄청 미련이 컸겠죠. 근데 그렇게 또 다른 일을 하면서 아주 저도 뭐 복 받은 사람이에요.

면담자: 일하셨던 곳 위치는 혹시 어디 근처 주변이셨나요? 어디요? 3 4년 더 일하셨다고 하셨어. 회사 내에서 회사 내에서 그런 것도 됐었나 봐요. 은퇴 원래 일하던 데에서 은퇴했지만 또 이렇게 기회를 주는 그게 있었나 봐요.

구술자: 그게 있죠 거기는 뭐라고 그럴까? 그전에는 하청이라고 그랬어.

면담자: 아 네네네네

구술자: 회사들이 회사 내에 있으니까요.

면담자: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한 번 하청에서 어떤 업무였는지 한 번 더 말씀해 주세요.

구술자: 하청에서 네네네 업무 네 거기서 저거 출하 업무였어요.

면담자: 추락.

면담자: 진짜 진짜 열심히 살아오셔서 선생님이 진짜 너무 존경스러운 것

구술자: 열심히 살긴 했는데 크게 성공은 못하고 그냥 빈축은 안 사고 남의 동정을 안 받을 정도로 살고 또 우리 자녀들도 우리 이화영 회장이나 이수영 회장님이 많이 기업인으로서의 혜택을 많이 주셔가지고 우리 자녀들도 참 그냥 직장생활 잘하고 잘 살고 또 우리 부부가 아직까지는 건강하게 사는 것도 다 회장님의 덕분이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면담자: 사모님이 한국 파이브를 같이 다니셨었는데 유니드로 갔을 때는 같이 안 가시고 이제 아이 자녀들 양육을 하는 거

구술자: 다시는 안 갔죠

13. 마무리 소감 (01:06:28~01:08:52)

면담자: 이제 이렇게 또 저희 지역 기록 사업에 이렇게 구술자로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드는데요. 이렇게 참여하신 소감이나 또 이런 저희가 남긴 오늘 말씀들이 어떻게 쓰이면 좋겠는지 마지막 소감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술자: 그래서 마음가짐은 각자 본인 본인의 인성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든지 감사할 줄 알고 또 대가를 어떤 대가가 있으면 감사할 줄 알고 대가가 없으면 자살할 줄 아는 그런 자신들이 돼야 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회사든지 개인이든지 그런 마음가짐이 있으면 서로가 신뢰를 갖게 되는 거고 또 저의 입장에서 이런 인터뷰가 결국 제가 있던 회사에서 있었던 일과 연관돼 가지고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또 평소에 그 회사 경영자들 CEO 분들한테 굉장히 존경을 가졌던 터에 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돼가지고 정말 천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이런 기회를 주신 이 학산문화원에 굉장히 감사를 느낍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것이 계기가 돼 가지고 제가 나이는 좀 많지만 앞으로 살아가는 날까지는 회장님들이 베풀어주신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제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고 사회 봉사를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살았지만 이 계기를 통해서 더 굳게 다짐을 해야 합니다.
면담자: 정말 고 본받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 같아 선생님 그럼 지금 직업란이 제가 안 그래도 직업란을 비워놨는데 그럼 학생이라고 적어
구술자: 이제 학생이
면담자: 그래도 됩니다. 그리고 그때 저희가 사전 인터뷰 때 선생님 생년월일은 아까 여기 적어주셨죠 네네 요거 제가 보고 참고를 이렇게 해줬고 네 이렇게 인터뷰 마무리하면 되고

14. 은퇴 후 삶, 방송통신대학교 봉사단 (01:08:53~01:17:40)

면담지원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이제 학교 다니시면서 봉사활동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혹시 그 봉사가 이제 동아리식으로 이렇게 돼 있는 그런 봉사
구술자: 아니고요. 학교 전체로 전체로 묶어진 봉사단입니다. 봉사
면담지원자: 그러면은 그 봉사단의 이름은 어떻게 돼요?
구술자: 방송통신대학교 봉사단
면담지원자: 그냥 그렇게 딱 우리 동아리처럼 무슨 무슨 방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방
구술자: 예 예 단체
면담지원자: 통신 대화
면담지원자: 그러면은 주로 봉사활동을 가시면 어떤 일들을 많이 하시는지 이제 그때그때 따라 다 틀리긴 하지만 그래도 생각나시는 활동들을 해 보시는
구술자: 저 시내에서는 청소 화단 정리라든지 주차장 대기소에 이렇게 유리를 닦는다든지 또는 그리고 오물을 죽인다든지 그런 걸 하고 또 아직도 우리 인천에 참 어려운 가정들이 많습니다. 그 지역에 가서 뭐 연탄 배달도 하고 또 음식 제공도 하고 점 점심 도시락도 날라지고 다른 또 다른 예로는 뭐랄까 노인분들한테 어떤 생활 생활하는 강의를 좀 한다든지 몇몇 분이 이렇게 마을 분들 모아놓고 그런 걸 하고 이 섬 지역에 가면은 아주 거기 처음에 연평도를 몇 번 갔었는데요. 그러면은 그물들이 그 주 어민들이 많이 바닷가에 널었다가 재활용을 하려다 못하고 그냥 바람 불어서 묻혀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 단체들이 가가지고 다 걷어서 잘라서 포대에다 담아가지고 이렇게 막 큰 포대에 담아서 다른 데로 이동시키고 그러는데 그걸 이제 잡아 빼서 그런 작업을 합니다.
면담자: 해양 정화 활동과
구술자: 그렇죠 양 그리고 어딘가 또 잠 이사 먹었네 자월도가 거기 가면 저 요양원 정신지체아들을 집단으로 수용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거기 가면 이제 어느 정도 수양이 된 사람들은 동네에서 이렇게 풀어가지고 감시를 하는데 감시라는 좀 인권 유린인데 이렇게 살피고 있는데

그러니까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누더라고요. 의 그래서 그 섬 자체의 그런 집단 주거가 돼 있어요. 그래서 1단계 이 사람들은 보호를 계속해야 되고 한 3단계 된 사람들은 많이 좋아진 사람들 동네에다 이렇게 풀어놔주면 따 없이 엉뚱한 짓도 하고 그러거든요. 이제 그런 걸 이렇게 보살펴주는 건데 그 보살펴주는 활동을 가서 하루 종일 이렇게 해주고 뭐 예를 들면 또 이거 소소한 얘기인데 5천 원이나 만 원 주고 너 한번 써봐 이렇게 하면 가서 그냥 콜라를 막 이만큼 사가지고 들이 마시는 사람도 있고요.

구술자: 빵을 그냥 막 물도 없이 막 집어넣는 사람들 별 사람 다 있더라고 그러면 앞으론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면 아무도 돈 안 줘 그래가지고 이제 말을 시켜 그런 교육이 한두 번 했겠어요. 근데 그게 그 사람들은 이제 인지 능력이 떨어지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그런 봉사활동 그런 봉사활동도 하고 등등 있습니다.

면담자: 다양한 활동

면담지원자: 그러면은 이게 학교 단체다 보니까 봉사활동 나가거나 이럴 때는 혹시 학교에서 지원금을 내주거나 이렇게 하시나요? 아니면은 개인 사비들을 다 모아서 1년에 한 번씩 회비를 모은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구술자: 그렇습니다. 디자인하는 자체 자 자이론

면담지원자: 어쨌든 그 회원들의 저기를 받아서 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하시는 거네요.

구술자: 그리고 주로 이제 뭐 자월도나 무슨 무슨 연평도 이런 데 가는 데는 주로 이제 봉사단 회비를 쓰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돈 걷어갖고 쓰고 먹고 그러는 거 뭐 배편은 싸니까 전기 같지 않고 이제 버스비만 가져도 되니까 그리고 또 시외에 사는 분들은 그래도 한 4~5만 원씩 줘야 되잖아요. 그런 건 우리 스스로 걷어가지고 이렇게 잡지 소 소통하고 거기 또 하나 빠진 게 있는데 요양원 같은 데 가서 이제 봉사도 하고 요양원

면담지원자: 요양원에 가서 봉사하시려면 힘드실 텐데 어 그게 그니까 뒷자리 이런 건 아니지만 그냥 같이 이야기하고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구술자: 그래서 프로그램을 확인해가지고 프로그램에 어떤 음악이라든지 놀이 활동 이런 게 주어진 프로그램 시간이 있으면 그때 가서 노래를 좀 해 준다든지 뭐 기타를 쳐준다든지 뭐 그리고 장구를 좀 쳐준다든지 그런 특기를 가진 친구들 몇 명 해가지고 가서 노래 잘하는 사람하고 풍악을 다루는 악기를 다루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일북하고 일부는 또 여관 같은 데 한정돼 있잖아요. 한 10명 이만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단체를 꾸려서 가기도 하고 그래요.

면담지원자: 그래도 되게 많이 활동하시는 것 같아요.

면담지원자: 그래도 그렇게 활동을 많이 하셔서 또 건강하신 것 같아요. 또 너무 집에만 있으면 사람이 이렇게 뭐라고 그래야 되지 좀 초췌해지고 쪼그라들고 이런 것들이 많은데 활동하면 할수록 내 건강도 챙기고 또 그만큼 또 시야도 넓어지니까 그런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구술자: 그런 것 같아요. 어디 봉사를 하거나 뭐 가서 돌아오면 몸이 힘들지만 희열을 느껴요.

면담지원자: 그 몸이 힘든 만큼 뿌듯함도 있고 내 나름의 즐거움도 있고 참 이게 어떻게 보면 좋은 취미라고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구술자: 제 생각에 그래요. 모든 아주 속된 말인데 모든 노인네들 또 도섭된 말에 모든 꼰대들이 다 같이만 훌륭한 게 아니고 나 같으면 이렇게 여생을 보내면 재미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제가 또 어떤 활동을 하냐면 선배 시민이라는 혹시 들어보셨인지 모르지만 우리 대한노인회와 같은 그런 법인을 하나 만들었어요. 우리 방송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님이 그래갖고 그 선배 시인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창립 단계에 있는데 인천에서 제가 그걸 주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이 선배 시민이 거기 보면 여러 가지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복지 혜택이라든지 그런 걸 못 받는 거 지스택을 무엇을 요구해야 될지, 그리고 사는 사람 살아가는 데 어떤 사고를 가지고 노년을 보내야 할지 그런 걸 교육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래서 그런 단체가 지금 그런 단체에도 가입해가지고 지금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교육청이나 시청에 MOU를 맺어가지고 이번 선거에 MOU가 체결돼가지고 체결돼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면담지원자: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도와주시고 고생하셨고
구술자: 아니에요. 그냥 그냥 이렇게 돌아다니는 걸 좋아해가지고
면담지원자: 이제 지금도 건강하시지만 더

*녹취문 내용을 세부 주제로 나눠 시간 기입
글씨체 : 함초롬바탕
글씨크기 : 세부주제-12pt(볼드체 적용) / 내용-10pt
줄간격 : 200%